

“내년에 주택 매입 계획 있다” 응답자 10명 중 6명

기존 아파트 구입 37%, “값 비싸 APT 청약 하겠다” 32%
비용은 3억원 이하 38%...20·30대 50% “내집마련 욕심”

직방 앱 접속자 설문조사

10명 중 6명이 내년에 집을 살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은 최근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2042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4.1%(1309명)가 내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10명 중 6명은 적지 않은 수치지만 지난해 조사(69.1%)와 비교해 비율은 줄었다.

최근까지 이어진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등, 향후 가격이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 움직임이 커지면서 주택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예년에 비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거주지역별로 지방이 69.8%로 가장 높았고, 경기(66.5%), 5대 광역시(62.8%), 인천(62.1%), 서울(57.2%) 등의 순이었다.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1309명)들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매입 방식을 묻는 질문에 ‘기존 아파트(37.7%)’를 택했다. 이어 ‘신규 아파트 청약(32.7%)’, ‘△연립, 빌라(10.2%)’, ‘△아파트 분양권, 입

주권(8.9%)’, ‘△단독주택(5.4%)’, ‘△오피스텔 청약, 매입(3.6%)’ 순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여전히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매년 응답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반면 신규 아파트 청약을 계획하는 응답 비율은 2020년 24.9%, 2021년 29.1%, 2022년에는 32.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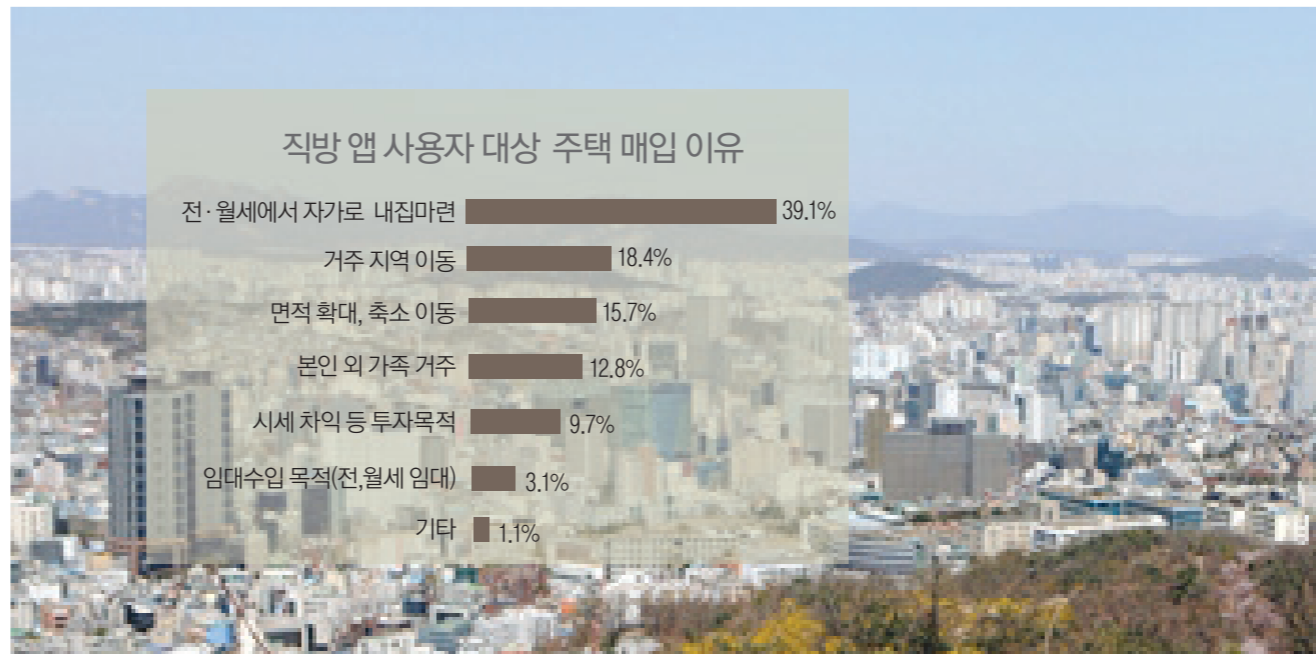
기존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청약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또한 ‘미미하지만 연립·빌라(8.4%→10.2%)’와 ‘단독주택(4.3%→5.4%)’을 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청약, 매입(1.3%→3.6%)하겠다는 응답 비율도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택 비용은 ‘3억이하’가 38.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억초과~5억이하(33.8%), △5억초과~7억이하(15.4%), △7억초과~9억이하(6.0%), △9억초과~11억이하(2.3%), △15억초과(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 ‘3억초과~5억이하’ 구간을 선택했던 응답자 비율이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3억이하’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기존 아파트



선택 비율이 낮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저가 매물이나 아파트 외 다른 상품군 등으로 관심을 돌리는 수요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매입비용도 낮아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계획 중인 주택 매입시기는 ‘1분기’가 38.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분기(17.3%) △미정(16.7%) △4분기(14.9%) △3분기(13.0%) 순으로 응답했다.

2022년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주지역 이동(18.4%) △면적 확대, 축소 이동(15.7%) △본인 외 가족 거주(12.8%) △시세 차이

등 투자목적(9.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20~30대에서 전, 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이유가 다른 연령대(20~30%대)에 비해 응답률이 50%대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에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58.6%(1196명)이 ‘없다’로 응답했다. 매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46%는 현재 1가구 1주택이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매도 계획이 ‘있다’로 응답한 응답자는 846명(41.4%)으로 연령별로는 60대 이상(59.7%)이 가장 많았고 40~50대도 40% 이상이 매도 의사를 밝혔다.

주택 매도 이유는 ‘거주지역 이동’이 3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면적 확대, 축소 이동(19.1%) △차익실현, 투자처 변경(16.5%) △신축 주택 입주(11.1%) △양도세 및 중부세 부담으로 처분(9.6%)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직방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규제 강화가 내년도에 이어질 예정으로 매수 관망 속에서 내 집 마련, 거주지나 면적 이동 목적의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날 전망이다”면서 “다만 비아파트로의 수요 분산과 중저가 선호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문용규 기자



수도권 인천 연수·석남·평택 교통 우수단지 견본주택 개관

이달 17일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우수한 단지들이 개관한다. 이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먼저 포스코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5번지 일원에 들어설 ‘더샵 송도아크 베이’의 견본주택을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4개 동이며, 전용면적 84~179㎡, 아파트 775가구와 오피스텔 255실 등 1030가구 규모다.

이 단지 인근엔 인천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이 자리한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향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도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송도 내 교육·생활 등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주변환경도 쾌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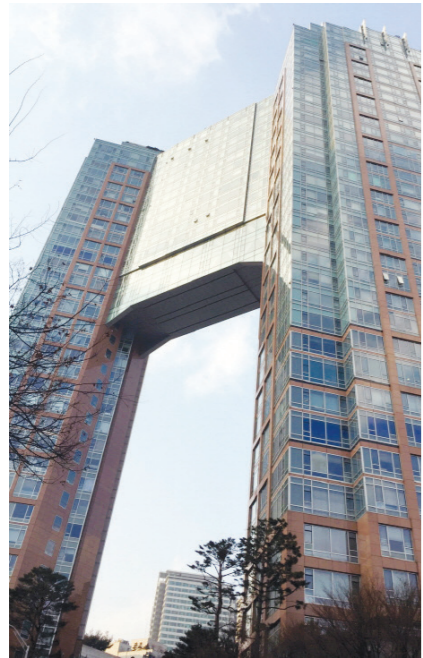
이수건설은 인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에 ‘브라운스톤 더 프라이م’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5개 동 규모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74㎡, 209가구,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4㎡, 134실로 구성된다.

교통편은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 2호선 석남역 초역세권 단지다. 여기에 초·중·고교를 모두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단지 앞 시장과 대형마트, 의료시설 등도 이용하기 쉽다. 더불어 녹지시설도 자리하고 있어 주변환경이 쾌적하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780번지 일원)’를 선보인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17개 동이며, 전용면적 59~84㎡, 1107가구 규모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송탄역과 송탄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우며 전철로 2정거장 거리에는 SRT 평택지제역도 위치한다. 아울러 학교와 도서관 등이 도보권에 있으며 단지 앞 상권과 영화관, 관공서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쉽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송탄산업일반단지 등도 가까이 직주근접의 장점을 지녔다.

올 5대광역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역대급... APT 규제 풍선효과

1~10월 5만 1151건 거래...부산 2만 4470건 ‘최고’
해운대 센텀리더스마크, 1년간 84.9% 상승 기록



한 오피스텔의 전경. 스카이데일리DB

정부의 고강도 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로 올해 5대 광역시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5대 광역시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0월 5대 광역시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5만 1151건이다.

5대 광역시에서도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으로 조사됐다. 올해 1~10월 부산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2만 4470건으로 나타났고, 이어 △대구 1만 613건 △광주 6471건 △대전 5831건 △울산 3766건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5대 광역시의 상업·업무

용 부동산의 거래건수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가 시행돼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비주택담보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돼 막자 수요가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제로 꼽히며 가격 상승까지 이어져 관심이 뜨겁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센텀리더스마크’ 오피스텔 전

용면적 103.2㎡는 1년간 3억 9500만원이 올랐고 84.9%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도룡KCC웰츠타워’ 오피스텔 전용면적 62.58㎡도 1년간 1억 5000만원 치솟고 42.9% 상승률을 보였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치솟는 아파트 가격과 규제에 오피스텔이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제로 자리잡은 만큼, 가격 상승세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영지 기자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쏘팔메토

10년 연속 판매 1위

No. 1

1회 분량: 총 60회 분량 / 0g(0%), 단백질 0g(0%), 지방 0g(0%), 나트륨 0mg(0%), 칼슘 0mg(0%), 철 0mg(0%), 비타민B1 1.2mg(100%), 비타민B2 2.4mg(100%), 비타민B6 1.5mg(100%), 셀레늄 30μg(55%)

1회 분량 당 함량: 열량 0kcal, 탄수화물 0g(0%), 단백질 0g(0%), 지방 0g(0%), 나트륨 0mg(0%), 칼슘 0mg(0%), 철 0mg(0%), 비타민B1 1.2mg(100%), 비타민B2 2.4mg(100%), 비타민B6 1.5mg(100%), 셀레늄 30μg(55%)

※ [안]의 수치는 1일 영양성분기준에 대한 비율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 1X(1+)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맨케어파워 옥타코사놀 **3개월분 증정**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77-6655